



## 사도 신경 使徒信經

[라]Symbolum Apostolicum [영]Apostles' Creed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의 바탕이 되는 핵심 교리를 담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다.

### I. 형성의 역사 “❤️❤️”

사도 신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많은 이단들과 사상적 오류의 위협들에 직면한 초기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었다. 교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주춧돌 삼아 세운 바로 그 교회를 계승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자신의 정통 신앙의 기준을 ‘사도적 권위’에 두었고, 이 사도적 권위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사도적 계승’, ‘신약성경 정경’, ‘신앙의 규범’, ‘신경’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도적 계승’과 ‘신약성경 정경’의 확립만으로는 어떤 교리가 사도적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신약성경의 광범위하고 비체계적인 신앙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신앙 규범’(regula fidei)이고, 이 신앙 규범에 따라 아주 간략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표현한 것이 ‘신경’이다. 세례 지망자들은 세례 받을 때에 이 신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사도 신경의 원초적 형태는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마태 16,16; 사도 8,37). 사도 신경은 성경에 실려 있는 신앙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을 위한 일종의 길잡이이며 교육 지침이다. 사도 신경의 내용은 우선 삼위일체의 하느님(마태 28,19)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사도 8,37 이하; 로마 1,3 이하; 1코린 15,3 이하; 1베드 3,18-22; 필레 2,5-11)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백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마태 28,19).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 마태 16,16). 또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세례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사도 2,38).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사도 8,37).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해 받은 사도 교회의 신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전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또 성경(말씀)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지셨습니다.”(1코린 15,3-4).

사도 신경의 내용은 초대 교회가 행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삼위 일체적 고백 등 두 개의 고백이 종합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삼위 일체적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태오 복음 28장 19절의 말씀과 함께 세례성사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년경 로마에서는 8~9개의 신조로 신경이 이루어지면서 신앙의 규범으로 정착되었다. 히폴리토(Hippolytus)의 《사도 전통》(Traditio Apostolica)에 나타난 신경은 ‘고대 로마 신경’이라고 불리는데, 사도 신경의 모체인 동시에 후기에 나타나는 모든 신경의 원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도 신경’이란 표현은 이 신경이 12사도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다는 전설이 퍼져 있던 4세기 말경에 나타났다. 4세기말 루피노(Tyrannius Rufinus)는 사도 신경에 대한 주석에서 이 신경의 사도적 기원을 주장하였다. 즉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을 확인하고자 가르침의 기본 골격과 신앙의 규범을 정했다는 것이다. 12사도들은 신앙에 대한 각자의 관심을 짧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사도적인 신앙 고백(사도 신경)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한 성 암브로시오(Ambrosius)도 신경에 포함된 12항목과 12사도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그래서 12사도가 각각 한 항목씩의 신조를 고백했다는 주장이 6세기경에는 널리 퍼지게 되었고, 중세기까지 이러한 주장은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피렌체 교회 회의(1439~1442)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 사도 신경이 제시되었을 때, 에페소의 대주교인 에우제니쿠스(Marcus Eugenicus)는 동방 교회에서는 사도 신경 및 그 사도적 기원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며 그 제안을 거부했다. 몇 년 뒤에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발라(Laurentius Valla, ?~1547)가 보다 발전된 이론을 내세워 사도 신경의 사도적 기원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사도 신경에 나타난 신조의 내용이 모두 성경적·사도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의 사도 신경은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공동체의 전례문이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요구되었다. 현재의 사도 신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례 문답 형식의 로마 신경’이 먼저 생겨났다. 이 신경은 신약성경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가 오늘날 사도 신경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신앙 요약문을 만들어서 세례 때에 예비 신자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세례 준비와 신앙 고백을 위한 장엄한 예식인 ‘신경의 제시, 전수 및 수락, 응답’ 등의 단계가 생겨났다. 이 세례 문답 형식의 신경이 개정되어 가면서 고대 ‘로마 신경’(Symbolum Romanum)이 만들어졌고, 이 신경에 따라 감독(주교)들은 예비 신자들을 가르쳤다. 이 신경은 또한 미사 중 말씀 전례 때에 감사의 기도로 바쳐졌다. 이와 같은 이중의 의미로 인해 4~5세기경에는 교회 공동체의 반성과 숙고, 전례를 통해 다듬어지게 되었다. 특히 당시 교회 안팎의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등 중요한 신조 및 교의에 관한 신학적 논쟁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고대 ‘로마 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2세기 말엽인 듯 하나 신앙 고백문 형식으로 확정되어 사용한 것은 4세기 후반이나 5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사도 신경의 12항목의 내용은 6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고대 로마 신경에서 사도 신경으로 발전하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와 첨가가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분에서 고대 로마 신경에는 없던 “천지의 창조주”(creatorem caeli et terrae)라는 부분이 첨가되었다. 이 부분이 첨가가 된 것은 당시 그노시스주의(Gnosticism)의 영향을 받은 이단자들이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신(神)을 악한 신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같은 분이시며, 하느님께서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부분에서 “성령과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란 표현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라는 정확한 형식으로 대치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고백하는 대목에는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저승에 가시어”(passus, mortuus, descendit ad inferna)라는 부분이 첨가되었다. 셋째 부분에서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보편된’(catholicam)이 첨가되었고, ‘모든 성인의 통공’(sanctorum communionem)과 ‘영원한 삶’(vitam aeternam)도 첨가되었다.

이렇게 변화되고 첨부된 사도 신경은 6세기부터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지에서 예비 신자 교육을 위한 지침서로 보편화되었으며, 7세기에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도 신경의 표준문(textus receptus)이 나오게 되어 로마를 제외한 다른 서방 교회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카알 대제는 로마 교회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도 좋게 하는 데 힘썼으며 그 결과 차츰 로마 교회에서도 전례에 사용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는 사도 신경을 서방 교회의 공식 신경으로 인정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사도 신경은 모든 서방 교회에서 세례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주일 미사 때마다 신자들은 이 신경을 외움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동방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 사도 신경의 채택과 평가 문제로 논쟁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사도 신경은 교회 일치에 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개조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II. 내용 “❤️❤️”

사도 신경은 삼위 일체적인 구조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경의 첫째 부분은 하느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신경이 믿는 하느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느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 준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하느님은 일반적인 신 개념이나 철학 개념상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나 현존하는 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다. 사도 신경은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며, 동시에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단락의 구조를 통하여 하느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세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신경의 바탕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을 믿고 고백한다.

둘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조항인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도 신경은 그분의 강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간결하면서도 풍부하게 강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심판주로 다시 오심 등의 내용을 담아 그분의 일생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라 하여 그분의 신성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은폐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이 교리의 핵심과 기초를 이루며, 그분께 대한 자기 결단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결정짓는다. “이분 말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사도 4, 12)

셋째 부분은 성령에 관한 것으로,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밝히려는 의도보다는 교회와 우리 구원의 관계를 신앙으로 고백한다. 교회와 영원한 삶의 희망은 성령으로부터 이해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의 목표는 하느님의 인간의 역사에 현존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이어진다. 본래 “모든 성인의 통공”은 주님의 몸께 의하여 ‘하나인’ 교회로 묶어 주는 성찬의 공동체성을, “죄의 용서”는 세례성사를 의미한다. 이 두 성사가 교회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신경의 셋째 부분은 성령의 역할과 결부시켜야 한다. 특이한 것은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 하지 않고 “육신의 부활”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이는 초세기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한 것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교 구원관은 전 인간, 즉 온전한 인격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 사도 신경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 ★ 가톨릭 교회교리서(185항)

“나는 믿나이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일치하는 모든 이에게 규범이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주는 신앙의 공통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86항)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초창기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해 왔다. 또한 매우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일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그 안에 많은 가지를 간직하고 있듯이 이러한 신앙의 요약은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포함된 참된 신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87항)

이러한 신앙의 종합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크레도”(Credo)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기도문들은 보통 “나는 믿나이다”(Credo)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신경”(Symbolum de fid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89항)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에 이루어진다. “신경”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위한 신경이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 19 참조) 베풀어지므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성삼의 세 위격(位格)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90항)

그러므로 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하느님의 제1위격이신 성부와 그분의 놀라운 창조 업적에 대해서, 다음에는 하느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와 인간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들 성화의 원천이며 원리이신 하느님의 제3위격 성령에 대해 고백한다.” 이것이 “우리들 세례 인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91항)

“이 세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구분이 된다. 교부들이 종종 사용하던 비유를 따라 우리는 이 구분을 절(節)이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 몸에 사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주는 관절이 있듯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믿어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성 암브로시오가 이미 확인한 오랜 전통에 따르면, 사도들의 수로써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신경을 열두 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192항)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많은 신앙 고백 또는 신경들이 있었다. 여러 사도 교회와 옛 교회의 신경들과 아타나시오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퀴쿰퀘(Quicumque)신경”, 그리고 몇몇 공의회 신앙 고백(톨레도 ; 라테라노 ; 리옹 ; 트리엔트)나 “다마스 신앙 고백”(fides Damasi), 교황 바오로 6세의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SPF, 1968)과 같은 교황들의 신앙 고백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193항)

교회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생겨난 신경들 가운데 어느 것도 지나가버린 시대의 것이라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신경들은 영원한 신앙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신앙에 다다르고 깊어지도록 오늘날에도 돕고 있다.

이 모든 신경들 중에서 두 가지가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194항)

사도 신경은 사도들 신앙의 충실한 요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져 이렇게 불린다. 사도 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이다. 이 신경의 막중한 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 신경은 사도들 중의 으뜸인 베드로가 주교좌에 앉았으며 그 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195항)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은 초기의 두 세계 공의회(325,381년)에서 나온 신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위를 가진다. 이 신경은 오늘날에도 동방과 서방의 양대 교회에 공히 간직되고 있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197항)

우리의 모든 삶을 “교의의 규범에”(로마 6, 17) 맡겼던 세례의 그날과 같이, 생명을 주는 우리 신앙의 신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그 품안에서 우리가 믿는, 교회 전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목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 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

(출처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

### 🌟 가톨릭 교회교리서(28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들(기도, 제사, 예배, 묵상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추구를 표현해 왔다. 이러한 표현 양식들은, 비록 모호한 점들을 내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것들이므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다.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

### 🌟 가톨릭 교회교리서(31항)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아,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에 이르는 몇 가지 “길”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길은, 자연 과학의 영역 안에서 얻어진 증거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참된 확실성에 이르게 하여주는 “일관성과 설득력을 가진 논증”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존재 증명”이라 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길”들은 창조, 곧 물질 세계와 인간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32항)

세계: 세계의 움직임, 변화, 우연성, 질서와 아름다움으로부터 우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33항)

인간: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개방성, 윤리적 선에 대한 감각, 자유와 양심의 소리, 무한과 행복에 대한 갈망 등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묻는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영혼의 표지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영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 🌟 가톨릭 교회교리서(36항)

“우리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는, 인간이 이성의 타고난 빛을 통해서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만물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가르친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학습목표

-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오는지에 대해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깨울 수 있는 미사와 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경험

- 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 주일이 되면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정작 왜 성당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교사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학생들이 왜 성당에 나오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 ▶ 내가 성당에 나올 때 친구들은 무엇을 합니까?

-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교리를 배울 때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예시답안 : 늦잠, TV, 컴퓨터, 학원 등

### ★ ▶ 우리는 왜 성당에 갑니까?

-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질문이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다.
- 예시답안 :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느님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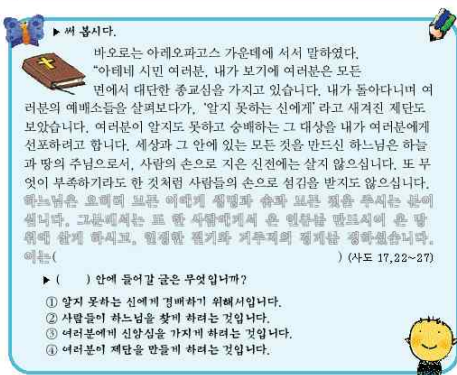
### ★ ▶ 내가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 위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신앙인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려준다.
- 예시답안 : 다른 친구들과 같이 늦잠, TV, 컴퓨터, 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 메세지

-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 ★ ▶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 창세기의 말씀에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을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는 서로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 예시답안 : 하느님



## 성경풀이 (창세기 1장)

하느님의 단순한 한마디 명령의 ‘말씀’ 에 의해 만물이 제각기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행위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졌음도 말해 줍니다.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야훼 의지의 간단한 선포만이 필요했습니다. 세계가 야훼의 창조적인 말씀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하느님 자신과 엉겨허 분리됩니다. 즉 세계는 신적인 본성과 그 힘의 유출도 아니요, 신화적으로 이해되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의 유일한 연속성은 그분의 ‘말씀’ 입니다. 세계가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세계는 그분의 소유물이며 그분은 그것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이외에 말씀에 의한 창조의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 48, 13 ; 시편 33, 6 ; 148, 5)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인간’ 을 말씀으로써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독특하고도 진지한 결심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느님께서 마지막 창조작업인 인간창조의 양식(樣式)을 ‘천상세계’ 에서부터 취하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느님과 심오하고 직접적인 ‘친밀성’ 을 누립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심사숙고하여(창세 1, 26)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을 구성하는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모상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에 그 참된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목적은, 그를 통해 인간에게 맡겨진 기능, 즉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의 주권을 묘사하는 표현은 아주 강합니다.(창세 1, 28) ‘카바스’ (kābas)는 ‘깃뵈다, 굴복시키다’ 는 뜻이며, ‘라다’ (rādāh)는 (포도를) ‘뵈다, 지배하다’ 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인으로서의 당신 권리를 지탱하고 강화하시기 위해, 바로 인간을 당신 주권의 표지로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의하면 아담은 “자기의 모습을 닮은” 셋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느님이 세대의 계승과 아울러서 ‘모습’ 을 전수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인해 ‘하느님의 모습’ 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 시대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창세 9, 6) 물론 타락설화는 인간의 창조시의 본성이 대단히 손상 받았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안의 하느님 모상에 영향을 끼친 방법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모세오경의 가르침 - 생활성서사)





## 성경풀이 (사도 17,22~27)

바울로는 그의 연설을 고전적인 형태로, 즉 “아테네 시민 여러분” 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을 때 격분했다 해도 (17,16) 그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 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찬사의 말을 하면서 연설을 끌어갑니다. 이것은 친교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효과적인 시도입니다. 바울로는 그가 그들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많은 메시지로 그의 청중들을 압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심을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으로 이끌어서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알도록 이끌러지는 사람만이 복음에 포함된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로가 “알지 못하는 신” 의 제단을 아테네인들의 실현되지 못한 탐구와 갈망으로 지적하면서 그의 연설을 시작하는 것은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울로는 그가 성경으로부터 알고 있는 하느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 알게 된 하느님에 관해 지적합니다. 그는 학식 있는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선포자요 증거자로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분은 성전이나 영상(影像)의 좁은 경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또 그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필요에 자신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의 초월적인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의 청중들의 지적인 습관을 고려합니다.

바울로가 이 하느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을 모든 인간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창조 이야기를 상기하게 됩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그러나 또한 사도행전은 전통적으로 “살아있는(zaein)” 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연상시키는 “제우스(Zeus)” 라는 단어를 겨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우스에 대한 찬송에서 제우스는 “살아 있는 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숨결” 로서 찬양되었습니다.

그러하여 헬레니즘적 사고와 생각은 성경의 메시지와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일류가 아담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신 하느님에 의해 인도되는 세계의 인간 역사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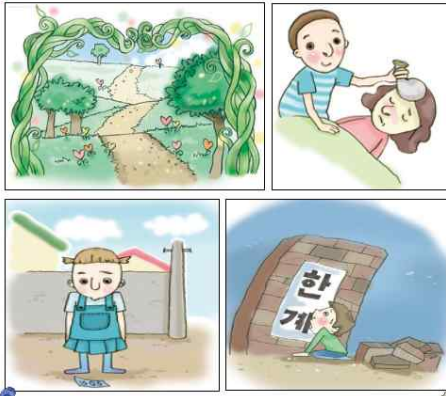
바울로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은 “하느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다.” 는 희망으로 하느님을 찾으라는 특별한 의무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연설은 점점 더 강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로는 인간 삶의 깊은 의미를 다룹니다. 그는 이성적 방법이든 신비적 방법이든 간에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다가서기 위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시도에 대해 직접 언급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로의 생각의 본질은 그의 구원의 메시지의 씨앗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제하며 자신을 청중들의 생각에 적응시키려 합니다.

“무지했던 때” 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이교 신앙의 시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로는 비록 이교 신앙이 깨달음과 계몽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잠대한 우상숭배의 잘못과 무지를 봅니다. 그는 이교 세계의 풍습을 서술할 때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서술합니다.(로마 1, 18-32)

로마에서 바울로는 무지하고 죄악에 물든 인간성의 어두운 모습에 대해, 구원의 도래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놓습니다.(로마 3,21이하 참조) 그리고 여기 아테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회개하라고 명하는 하느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느님이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도록 택하신 분” 이라고 서술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관심을 모은 이제, 그는 이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며 하느님이 택하신 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므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바울로는 그의 편지와 연설에서 늘 그랬듯이 구원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기초로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징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설을 끝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청중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신약성서 영적독서를 위한 사도행전 - 성요셉출판사)

🦋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가 못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찾습니까?

## 🌻 깨달음

- 그림은 모두 우리가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들이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부모님이 아프실 때 기도하면서,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갈등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외에 학생들은 언제 하느님을 깨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 ▶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가 잘 하는 것을 적어본다. 그 과정에서 잘 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 예시답안 : 축구, 야구, 운동, 공부, 인사 등

★ ▶ 내가 못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가 못 하는 것을 적어본다. 더불어 할 수 없는 것도 적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못 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해 보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본다.
- 예시답안 : 운동, 공부 등 못 하는 것과 계절 변화, 날씨 변화 등 할 수 없는 것

★ ▶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찾습니까?

-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는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고,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는다. 하지만 전문가와 부모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찾고 깨달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 예시답안 : 하느님, 부모님, 전문가 등

🦋 ▶ 우리는 미사와 교리시간에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일 년 동안 매주 빠지지 말고 미사와 교리에 출석해 봅시다.

	1주	2주	3주	4주	5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 응답

- 앞에서 우리는 한님을 찾고 깨달아야함을 배웠다. 그 실천 사항으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미사와 교리에 매주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교사는 출석할 때마다 적절한 확인을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한 학기나 일 년이 지난 후 출석상을 주는 방법도 좋다.

★ ▶ 우리는 미사와 교리시간에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 일 년 동안 매주 빠지지 말고 미사와 교리에 출석해 봅시다.
- 미사와 교리의 스티커를 구분하여 붙여주는 방법
- 작은 도장과 큰 도장을 준비하여 구분하는 방법